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미국을 충격에 빠뜨린 이스라엘의 패배

수천 명의 게릴라 군대가 세계 최강대국의 지원을 받은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을 꺾었다

조지 W 부시가 지금 깨닫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정부도 수천 명을 학살하고 수만 명을 불구로 만들고 수십만 명의 민간인을 난민으로 만들 수 있는 첨단 군대조차 대중의 지지를 받는 단호한 저항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유엔 결의안에 따른 휴전이 발효되기 18시간 전에 이스라엘 지상군이 레바논에 대한 최후의 공격을 감행했지만 헤즈볼라는 이에 맞서 여전히 2백50기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었다.

침략에 맞선 강력한 저항은 이스라엘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어떤 적이든 꺾을 수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시작된 전쟁이 사실은 그 군대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말았다.

[이스라엘의] 패배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관계에 더 근본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몇 주 동안 부시 정부가 휴전을 추진하는 외교적 노력을 계속 좌절시킨 이유는 동맹국인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분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여주기 위해서였다.

최근에 이스라엘 일간지 <하아레츠>의 기자들은 이렇게 지적했다.

“이스라엘 군대가 천하무적이라는 인상을 미국인들에게 심어주지 못한다면, 이스라엘이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지니는 가치가 급락할 것이다. ...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일찍이 깨달았듯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계속 강화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자국의 안보를 지키고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꾸준히 성공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란의 핵심 동맹 세력으로 여기는 헤즈볼라를 분쇄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경비견이 그 주인을 기쁘게 해 주는 한 방편이었다. 그리고 훨씬 더 광범한 [전쟁] 계획의 일부였다.

<하아레츠>의 반전 칼럼니스트 기드온 레비는 지난주에 이렇게 썼다. “개전 초기에 이스라엘 군 수뇌부가 빠지며 공언한 대로 헤즈볼라가 몇 일 만에 공습으로 무너졌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아마 우리[이스라엘]는 기뻐서 미쳐 날뛰었을 것이다. 미국은 우리가 시리아와 군사적 충돌을 하도록 몰아갔을 것이고, 승리에 도취한 우리는 미국의 말에 혹했을 것이다. 아마 다음 차례는 이란이 됐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대중의 지지를 받는 단호한 저항을 꺾지 못했다

유엔 결의안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편들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중동 전역에서 저항세력이 강화됐다. 패배에 직면한 이스라엘 정부는 군사력으로 이를 수 없었던 것을 확보하기 위해 유엔의 외교적 노력에 의존해야 했다.

미국도 유엔의 중재에 반대하던 기존의 입장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부시 정부의 고위 관리가 이스라엘이 군사적 승리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를 깨닫고 휴전을 지지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물인 유엔 결의안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편들고 있다. 결의안은 “헤즈볼라의 모든 공격 중단”을 요구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공격적 군사 작전” 중단만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항상 자신의 공격이 “방어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결의안은 포로로 붙잡힌 이스라엘 병사들 — 레바논 침략의 구실이 된 — 의 무조건 석방과 헤즈

볼라의 무장해제를 요구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 감옥에 수감중인 레바논인 재소자들의 운명을 재고할 것을 “권고”할 뿐이다.

반전운동은 계속돼야 한다

앞으로도 휴전이 지속될지 어떨지 지금으로서는 분명치 않다.

이스라엘군 수천 명이 여전히 레바논 남부에 주둔하고 있고, 헤즈볼라도 일체의 추가 공격에 맞서 자국을 방어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중동 지배 야욕에 타격을 입은 이스라엘과 미국 정부가 또 다른 도발을 감행하기로 결정할 위험도 있다.

레바논 · 시리아 · 이란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저지른 학살 때문에 반전 운동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레바논에 '평화유지군' 파병 말라

평화유지군은 이스라엘의 좌절된 목표를 돕기 위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레바논에 투입될 "평화유지군"으로 한국군을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8월 18일 KBS 뉴스 등). 정부는 이것이 지난 11일 통과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것이고, 파병 부대는 "재건 및 치안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이 초래한 재앙의 규모를 고려할 때, 레바논의 재건과 구호 활동을 위한 지원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레바논에 파견될 '평화유지군'(최대 1만5천 명 규모)의 진정한 목표는 결코 레바논의 '구호'나 '재건'이 아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군과 협력하는 또 다른 점령군 구실을 하게 될 것이다.

유엔 결의안은 "레바논 정부군을 제외한 모든 무장단체[물론 헤즈볼라를 뜻한다]의 무장해제"를 거듭 강조하고 있고, 이를 위해 "평화유지군이 ...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 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루지 못한 목표(헤즈볼라 분쇄)를 성취하기 위한 또 다른 수단(서방 열강이 이끄는 또 다른 점령군)일 뿐이다.

지난 17일 마크 브라운 유엔 사무차장은 각국 외교관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레바논에 파견할 유엔 평화유지군은] 필수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장비를 제공받는 강한 병력이 될 것이다." 평화유지군이 전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디펜던트〉의 저명한 중동 전문 기자인 로버트 피스크는 이렇게 말한다. "다국적군은 그들[레바논인]을 위해 오는 것이 아니다. 다국적군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중동을 재편하는 것을 돕기 위해 오는 것이다. ... 그러나 미국의 야망은 항상 중동의 악몽이 되곤 했다."

민주노동당은 이스라엘의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공격 중단과 철군을 요구하는 한편 서방 강대국과 노무현 정부의 '평화유지군' 투입 시도에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



유엔에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 레바논 베이루트의 성난 시위대

유엔 평화유지군이 과거에 레바논에서 저지른 짓

'평화유지군'에게 레바논의 재건과 평화 정착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유엔 평화유지군이 과거에 레바논에서 저지른 짓을 돌아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1978년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저항세력의 공격을 빌미 삼아 레바논을 침공하자 유엔은 미국·프랑스·이탈리아 등이 참가한 유엔평화유지군(UNIFIL - 지금도 레바논 남부에 주둔하고 있다)을 레바논에 파견했다.

그 뒤 1982년 8월 미국은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와 그 활동가들이 베이루트에서 철수하는 대신 이스라엘은 베이루트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협상을 중재했다. 또, 미국은 무장이 해제된 팔레스타인 난민촌을 위해 "적절한 안전 보장 조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PLO는 베이루트 철수약속을 즉각 이행했다. 그러나 PLO가 약속을 이행하자마자 미군은 일정을 앞당겨 레바논에서 철수해 버렸고, 9월 중순 아리엘 샤론이 이끄는 이스라엘군은 베이루트 서부 사브라와 샤탈라의 팔레스타인 난민촌을 봉쇄한 채 극우파 기독교 민병대를 앞세워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을 학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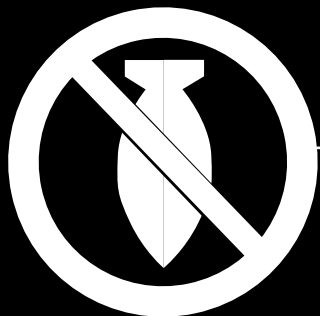
유엔평화유지군은 학살이 끝난 9월 말 다시 레바논에 들어왔다. 그러나 이들은 이스라엘을 비난하기는 커녕 이스라엘의 점령에 저항하는 세력을 공격하면서 레바논 정부가 이스라엘과 평화 협정을 체결하도록 압력을 넣는 데만 열을 올렸다.

1983년에 베이루트 주재 미 대사관과 미 해병대 기지가 저항세력의 공격을 받은 것은 이러한 서방 강대국들의 위선과 배신에 대한 분노의 산물이었다.

민주노동당이 앞장서 투쟁합시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즉각 철수를 위한 반전집회

일시: 8월 26일(토) 오후 4시 장소: 서울 도심
주최: 파병반대국민행동 등



9.23 자이툰 부대 연내 완전 철군을 위한 반전 행동

일시: 9월 23일(토) 오후 3시 장소: 서울 도심 주최: 파병반대국민행동